

케이뱅크, 4100만주 유상증자... 5조원대 IPO 본격 추진

주중 증권신고서 제출 계획
공모희망가 9500~1만2000원
주담대 의존 등 실적 우려도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최대 5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비교군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1만원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실적 우려를 딛고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 4100만주의 신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조치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 기존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시총 3조9611억~5조3억... 올해 최대 기업공개

앞서 케이뱅크는 기업공개(IPO)시

신주발행과 구주매출 비율을 5대 5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820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희망가액은 9500~1만2000원이다. 공모희망가액을 상장 예정 주식수에 대입해보면 공모규모는 7790억~

9840억원으로 최대 1조원에 달한다.

신주를 포함한 케이뱅크의 총 발행 주식수는 총 4억1696만5151주로 공모희망가액을 적용하면 시가총액은 3조9611억~5조3억원이다. 이는 올해 최대의 기업공개 규모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션(3조

7071억원), 시프트업(3조4815억원)과 비교해도 기업가치가 크다.

케이뱅크는 이번주 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대표 주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공동으로 맡았다.

◆시장상황에 따라 실적변동성 높아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실적과 관련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케이뱅크의 경영실적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의존이 큰 만큼 시장상황에 따라 실적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상반기 말 여신잔액은 15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7%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정부주도 대출 갈아타기가 확대되면서 아파트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이에 따라 한달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다섯 차례 인상했다.

아파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케이뱅크의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케이뱅크의 업비트 예치금 잔액도 줄고 있다. 케이뱅크의 2분기 예치금 잔액은 전분기 대비 40% 가량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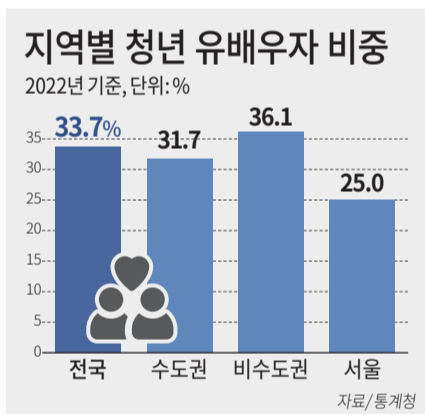
비교군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상장 이후 9만4000원을 넘어섰던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날 2만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 창업주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노사갈등에 발목이 붙잡히면서 카카오뱅크 주가하락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는 상장 후 3년간 높은 여신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는 5조40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주가 방향성은 소호(자영업자) 대출 성장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통계청, 2022년 청년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25~39세 청년 3명 중 2명 미혼... 절반은 '캥거루족'

유배우자 비율, 수도권 < 비수도권
여성 40%·남성 27.5%... 13%p 차



국내 25~39세 인구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1/3에 그쳤다. 서울 거주민의 경우, 이들 나이의 1/4만 배우자를 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국 8개 주요 시 및 9개 도 중 유(有)배우자 비중이 가장 낮았다. 부산이 30%를 겨우 넘어서며 그 다음으로 낮았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 있는 경우의 중위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연 200만 원가량 적었다.

통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발표했다. 단, 사회통념상의 혼인기를 고려해 청년의 연령을 청년기본법상 19~34세와 달리 25~39세로 분류해 조사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청년 중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33.7%로 전년 대비 2.4% 포인트(p) 내려왔다. 배우자가 없는 청년의 비중이 66.3%인 것이다. 성별로, 여자의 유배우자 비중이 40.4%로 남자(27.5%)에 비해 13%p 가까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60.3%)에서 10명 중 6명이 배우자가 있었다. 30대 초

반은 34.2%, 20대 후반은 7.9%가 배우자를 뒀다. 비수도권의 유배우자 비율이 36.1%인 반면 수도권은 31.7%에 머물렀다.

17개 주요 시·도별로, 세종지역 25~39세의 51.4%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충남이 39.9%로 그 뒤를 이었고 경남(39.2%), 울산(38.9%), 강원(38.5%), 전남(38.5%), 제주(37.6%) 순으로 높았다.

서울이 25.0%에 그치며 가장 비중이 작았다. 또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모두 전국 평균(33.7%)을 밑돌았다. 낮은 순으로 서울에 이어 부산(30.9%), 대전(32.4%), 광주(32.7%), 대구(32.9%), 인천(33.5%)였다. 경기도는 36.6%였다.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중위소

득(5099만 원)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429만 원)보다 많았다. 이에 반해 여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2811만 원)의 중위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013만 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주택소유 비중은 31.7%로 배우자 없는 청년(10.2%)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주택자산가액 1억50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이 배우자가 있는 청년보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비중은 50.6%로 전년 대비 1.3%p 낮아졌다. 부모동거 비중은 여자(51.1%)와 남자(50.2%) 등 성별에 구애받지 않았다. 연령별 부모동거 비중은 20대 후반이 57.0%, 30대 초반은 46.3%, 30대 후반은 41.8%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티메프 파산 면했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자체 재정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단계라며 법원에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맡을 관리인으로 조인철씨를 선정했다. 또,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를 제3자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함께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 법인가를 거친 후 회생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권고했고 24일까지를 채권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티메프의 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 이 맡았다.

앞서 재판부는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의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양사와 채권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티메프의 이번 회생계획안이 재판부가 정한 기간 안에 마련된다면 최대 1년 6개월 안에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반면,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빛나 기자 vitna@

금융당국 내달 경영실태평가... 사퇴-인허가 맞교환 전망도

» 1면 '증권업 진출 특혜...'서 계속

금융권 관계자는 "집합투자업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라이선스 취득이 어려워 많은 시간을 반쪽짜리 증권사로 영업을 해야 될 것"이라며 "우리투자증권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 회장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경영실태평가... 생보사 자회사 승인 변수

우리금융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인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ABL생명보험주식회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

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총 인수 금액은 1조5493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2조원보다 적은 돈으로 생명보험사를 확보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영향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생보사의 자회사 승인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달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와 동시에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경영실태평가는 2~3년 마다 금융기관들의 경영부실위험을 파악하는 평가다.

이번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3등급 이하를 받으면 현재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가 무산된다.

경영실태평가는 전체 5등급으로 되어 있고 우리금융은 현재 2등급을 받은 상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금융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 평가항목 중 올해부터 내부통제 비중이 5.3%에서 15%로 확대되면서 보험사 인수를 완료해야 하는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위기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 계약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허가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를 압박하는 동시에 금감원의 협조가 어렵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 진출을 위해 임 회장의 사퇴와 인허가 승인을 맞바꿀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달 28일 보험사 인수 계약체결 후 "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소통해 우리투자증권 라이선스 취득과 보험사 승인을 전제로 임종룡 회장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각에선 사퇴 시점이 추석 전후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조병규 은행장이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경영 안정성을 위해 그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